



금융위원회, 첨단산업과 손잡고 우리 AI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

- '퓨리오사 AI' 방문 및 관련 밸류체인 기업과 간담회 개최
- 이덕원 금융위원장, 국내 AI반도체(NPU) 대표 기업 중 하나인 퓨리오사AI를 현장 방문하여 국산 AI 반도체·모델 기업 5개사와 간담회 개최
 -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금융의 시각을 넘어 기술의 시각”을 결합하여 AI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
 - 국민성장펀드는 1·2차 메가프로젝트에 AI 생태계 프로젝트를 포함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조원의 AI분야 자금지원 완료
- 소버린 AI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의 일상과 산업현장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피지컬 AI까지 안목 확대

【관련 국정과제】 22번, 초격차 인공지능(AI) 선도기술·인재 확보

46-1번, 진짜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 신설)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5.12일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하여 생산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대표 AI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AI반도체(NPU) 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시찰하고, 향후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AI와 관련한 반도체 및 서비스 분야의 산업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마련하였다.

- 일시/장소 : 5.12일(화) 14:30 ~ 16:00 /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 AI 본사
- 참석자 :
 - (정부)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 등
 - (산업은행)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신혜숙 국민성장펀드부문장
 - (산업계)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뽀튼 AI, 로앤컴퍼니 등
- 주요일정 : 참석기업과의 간담회, 퓨리오사 AI 현장방문 및 AI 서비스 시연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지금 세계는 단순한 기술경쟁을 넘어 산업의 질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AI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서, “AI는 전기와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의 기반이며, 산업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다시 쓰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현재 우리의 AI생태계는 반도체와 모델 등이 외국기업의 GPU와 빅테크 기업 모델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만큼,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AI 주권,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저전력 고효율의 NPU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동시에 우수한 국산 AI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국가 경제차원의 전략과제”라고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25.12.19)로 ‘K-엔비디아’ 사업을 포함한 데 이어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 AI 프로젝트’로 ‘반도체→데이터센터→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및 응용서비스 개발’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 집행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실제로 `26.1~4월까지 4개월간 국민성장펀드가 11건, 8.4조원의 승인 실적을 보인 가운데 AI 분야에만 4건, 2.0조원의 자금이 집중지원되고 있다.

【 AI 분야 국민성장펀드 지원 현황】

기업명	투자방식	국민성장펀드 지원금액	지원의미
리벨리온	직접투자	6,400억원	- 대표 AI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금지원
업스테이지	직접투자	5,600억원	- 법인용(B2B) AI 솔루션 고도화 및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운영
국가AI 컴퓨팅센터	인프라투융자	4,000억원	- 1.5만장의 첨단 AI 반도체 확보 및 국산 AI 반도체 판로, 글로벌 협력
네이버	저리대출	4,000억원	- 독자 LLM모델 고도화 및 포털서비스 전반에 AI 역량강화
합계		2조원	(既승인액(8.4조원) 중 약 24%)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AI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리벨리온과 업스테이지 등 국내 대표 AI 밸류체인 기업에 전례없는 수천억원대 직접투자를 집행하였고, ‘국가 AI컴퓨팅센터’ 등도 민관의 협업을 통해 사업진행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고 하면서, 국민성장펀드의 AI산업 분야에 대한 추진성과를 소개하였다. “AI의 길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닌만큼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반드시 필요하고 금융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이제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갈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며, “앞으로 금융은 재무제표와 담보중심의 관점에서 기술과 데이터, 인재와 생태계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산업을 이해하는 금융’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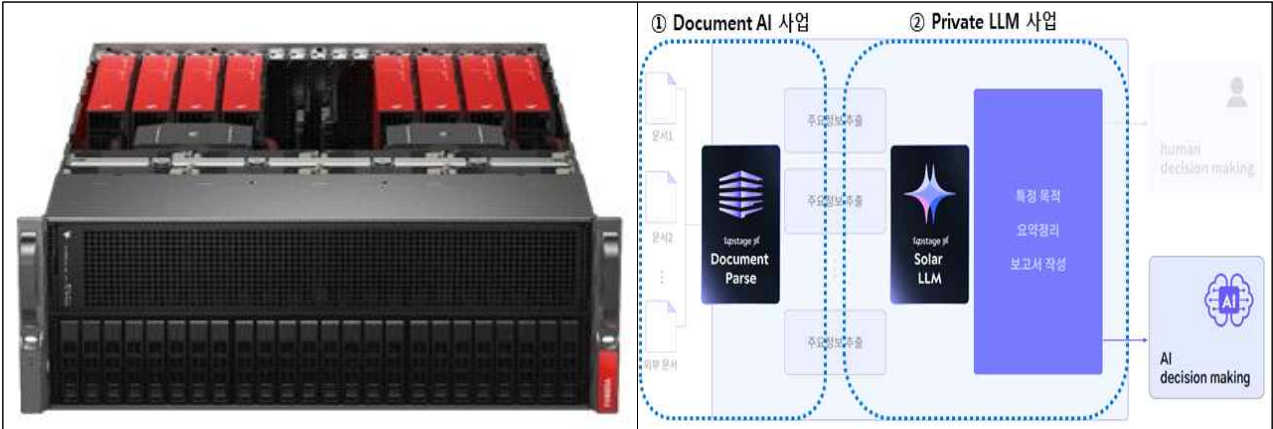
2. 간담회 주요 내용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회사개요 및 향후 투자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먼저, 퓨리오사AI는 차세대 추론 특화 AI 반도체(NPU)인 ‘레니게이드(Renegade)’의 실시간 추론 성능을 강조하였다. 특히, 레니게이드는 글로벌기업의 GPU 대비 압도적인 전성비(전력 대비 성능)를 구현하여 향후 AI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뒤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자라운드를 통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하여 2세대 반도체인 ‘레니게이드’의 양산자금 및 3세대 반도체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업·정부용 AI 솔루션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벤처기업인 업스테이지가 차세대 법인용(B2B) AI모델의 고도화 및 일반국민용 LLM모델인 ‘Solar Open’의 개발 계획을 설명하였다. 업스테이지의 이활석 CTO는 “국가 대표 AI 기업으로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로 기술 주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퓨리오사AI 레니게이드 】

【 업스테이지 B2B 사업모델 개요 】



이 자리에 함께한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소버린 AI 확보에 있어, 국산 AI 반도체(NPU)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소버린 AI를 기반으로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20년도부터 꾸준히 지원해 왔던 AI 반도체를 비롯하여 국가대표 AI 모델 등 AI 생태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와 지원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 병기”라며, “산업부도 M.AX (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유망 팹리스가 설계한 칩이 우리 제조현장에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대규모 R&D, 실증, 양산 등 전주기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역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향후 우리의 일상과 산업현장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퍼지컬 AI까지 넓은 안목으로 살펴보며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 기업 등을 포함한 유망기업에 대해 시장 역할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성장기업 발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 유망기업의 발굴 통로를 보다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첨단산업2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홍 (02-2224-2050)
		담당자	사무관	이호일 (02-2224-2056)
담당 부서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정건영 (044-202-6240)
		담당자	사무관	심항섭 (044-202-6244)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427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